

정명훈 지휘 · 조성진 협연 도쿄필 익산 공연

익산예술의전당서 5월 10일 개최... 오늘 익산시민 인증 회원 선예매 가능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이 명예 음악감독으로 있는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이하 도쿄필)가 익산예술의전당을 찾는다.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내한 투어는 2015년 한일수교 행사의 하나로 서울시향과 합동 공연했던 것을 제외하면 19년만의 일이다.

8일 익산시에 따르면 도쿄필은 5월 10일 오후 7시 30분 정명훈의 지휘로 무대를 선보인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협연자로 나서 더욱 기대를 모은다.

이날 공연의 1부는 조성진의 협연으로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슈만이 유일하게 남긴 피아노 협주곡은 연인인 클라라 슈만에게 바친 곡으로 알려져 있다. 2부 무대에서는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이 웅장하게 연주된다.

도쿄필은 1911년 나고야에서 창단한 일본 최고(最古)의 교향악단으로 NHK 교향악단과 더불어 일본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다. 1989년부터 도쿄 오페라시티에 본거지를 두고 관현악과 오페라, 발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간 170여 회 이상의 공연을 하고 있다.

정명훈은 도쿄필과 2000년부터 호흡을 맞춰왔으며, 2016년에는 외국인 최초로 명예 음악감독으로 임명됐다.

이번 내한공연의 협연자로 나서는 피아니스트 조성진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러브콜을 받는 피아니스트로 오랜 시간 도쿄필과 음악적



정명훈 &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협연 조성진 포스터

인 교류를 맺어왔다.

두 사람은 2016년 정명훈이 도쿄필의 명예 음악감독으로 취임한 후 일본에서 처음 공연할 때 조성진이 협연자로 함께하며 그동안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두 거장과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가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을 협연하는 것만으로도 5월의 익산 공연은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좌석을 미리 예매할 수 있는 '익산시민회원 선(先)예매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선예매는 4월 9일 오후 5시까지 익산시민을 인증한 회원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미리 익산시민 인증을 해 두는 것이 좋다.

익산시민회원 선예매는 익산예술의전당 누리집에서 4월 11일 오후 2시부터 가능하고 일반 예매는 4월 12일 오후 2시부터 가능하며 전화 예매는 불가하다.

익산시민 회원으로 인증하려면 익산예술의전당 누리집 회원가입 후 익산시민 인증이 가능한 신분증을 가지고 최초 1회만 익산예술의전당을 방문해 인증 절차를 거치면 된다.

이번 공연은 초등학생 이상 관람이 가능하고 R석 18만 원, S석 15만 원, A석 12만 원, B석 9만 원, C석 6만 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익산예술의전당(063-859-325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처럼 익산예술의전당 관장은 "세계적인 공연을 익산에서 관람할 수 있게 된 만큼 시민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특히 익산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익산시민 선예매제를 시행하니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제1회 남원세계축제포럼 개최

5월 10~11일 지역축제 진화 · 혁신방안 모색

남원시는 대한민국 최초 지역축제로서 글로벌 축제로의 발전과 지역축제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5월 10~11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춘향제 100년, 지역축제 진화와 혁신'이라는 주제로 '남원세계축제포럼'을 개최한다.

이에 따라 시는 축제와 관광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하고자 하는 자발적 의지를 갖고 이번 포럼에 해당 분야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내외 축제와 관광, 지역발전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축제의 진화'와 '혁신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포럼은 국내외 전문가를 분야별로 초청해 발제와 토론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지자체의 축제와 관광 관계자, 지역 문화관광재단 임직원, 지역예술인, 문화기획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섹션 1은 '지역축제산업 성장과 로컬관광의 전략적 관계'라는 주제로 이탈리아 페라라 버스커스 페스티벌의 '레베카 보토니(Rebecca Bottoni)' 위원이 이탈리아 사례를 발표하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병 석화 연구위원이 류정아 박사가 전략적 관계를 발제한다.

섹션 2에서는 'K-전통문화와 춘향제의 세계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프랑스 아비뇽페스티벌 '알랭 티마르(Alain Timar)' 집행위원의 발표와 한양대 국제관광대학원 겸임교수 이지 TNL 김지선 대표를 글로벌전략(Global strategy)을 발제하고, 섹션 3은 '인구



소멸 관점에서 지역축제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일본 축제전문가 오마츠리재팬 '스가와라 켄스케(菅原健介)'의 일본의 우수축제 사례와 건국대 글로벌MICE 전공 서병로 교수가 지역축제 역할을 발제한다.

한편 남원시는 포럼을 통해 '2030년 춘향제 100주년'을 준비하는 남원춘향제가 근대 축제 효시로서의 공문화와 지역 인구소멸로 위기에 놓인 지방자치단체의 축제 산업 활성화와 로컬 관광과 전략을 통해 '관계 인'구를 확보할 수 있는 사회적 해법을 제안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620-5783)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우리동네 생활문화공간 지원사업 공모

전주문화재단, 15~19일 방문 접수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오는 15~19일까지 2024 우리동네 생활문화공간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생활문화예술 활동 기반 조성하고 지역 생활문화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공모는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는 자체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책방, 공방, 작은도서관 등의 문화공간 활

동 지원(유형 I)이며, 두 번째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활동 지원(유형 II)이다.

유형 I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동네 생활문화공간을 대상으로 공간 및 주제의 적합성, 기획 능력 등을 심사해 13곳을 선정, 최대 5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단, 국가나 지자체 등의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은 제외된다.

유형 II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생활문화예술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5개 동호회를 선정해 최대 3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계획

이다.

두 유형은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기존 전주 생활문화예술동호회와의 중복 지원도 불가하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유형별 지원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공유회음실(완산구 동문길 80)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결과는 26일 누리집에 공고된다.

재단 관계자는 "올해는 지원 체계와 주제 범위가 확장돼 공고 및 유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특히 방문 접수만 진행되므로 접수 마감 기한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생활문화팀(063-231-2015)으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도내 문화예술인 의료복지 활성화 '맞손'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협약 체결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8일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회장 최찬욱, 이하 협회)와 문화예술인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경운 대표이사와 최찬욱 회장은 도내 문화예술인의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 안정적인 문화예술 창작 환경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전북자치도 예술인 의료복지 기여와 예술창작 활동 발전 도모, △교류 협력을 통한 전북자치도의 문화예술 경쟁력 확보, △전북자치도 문화예술 정책 부응 사업 발굴 등에 뜻을 모았다.

특히 재단 임직원에도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등의 의료혜택을 지원함으로써 근무 환경개선과 사기진작을 기대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20일 '레인보우쇼' 서커스 공연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이 올해 첫 야간개장의 문화공연으로 '레인보우쇼' 서커스 공연을 진행한다

레인보우쇼 공연을 맡은 '준디아'는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스페인 피라 타레가 축제를 포함한 22개국에서 공연을 하는 등 서울 문화재단 서커스 신진예술가 육성사업 프로그램에 선발돼 국내 최고 수준의 스탠드업

다야블로 서커스 쇼를 자랑하는 아티스트로 알려져 있다.

레인보우쇼는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공, 모자, 유리구슬 등 다양한 저글링 기제가 익살스러운 스탠드업 코미디의 형태로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예약 없이 자유롭게 관람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13일 고준석 완창무대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오는 13일 오후 3시, 국립민속국악원 예음헌에서 소리꾼 고준석의 박봉술제 적벽가 완창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판소리의 대중화와 계승·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민속국악원의 '소리 판' 완창무대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소리꾼 고준석은 제41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일반부 장원, 2022 전주 완창무대 적벽가 완창 등의 경력과 현재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안애란, 조상현, 김명숙 선생의 지도로 숙련된 예술가로 성장했으며, 고수 김형주는 국립남도국악원 기악단 단원으로 활약 중이며, 뛰어난 리듬감과 완벽 한 호흡은 공연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기름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국 문화재청 제공)